

수필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바다

유 희 진*

사람들은 때때로 바다를 보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기분이 울적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때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기를 원한다. 커다란 자연의 그릇인 바다는 때론 아름다운 장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황홀감을 주기도 하고 외로울땐 그 큰 가슴을 열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

나는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다. 섬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섬이 또 조그마한 몇 개의 꼬마섬을 가진 그런 섬. 비록 다리 하나면 육지로 나갈 수 있어, 소설책에서 나오는 그런 어촌의 섬은 아니지만 학교를 갈 때, 혹은 친구집에 놀러 갈때도 항상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릴 때는 할머니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다. 할머니집도 같은 섬에 살았는데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다. 혼자 장사를 하시며 사시는 할머니 집에 두 살 위인 사촌 언니와 나는 일주일마다 갔었다. 할머니집과 불과 몇 분 거리에는 바다가 있었다. 이름 난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아담하고 언니와 놀기에는 더없이 좋았다. 여름... 우리는 할머니집에 있는 반찬을 가지고 도시락을 썼다. 김치, 나물... 우리는 소풍가는 마음으로 벌써 들떠서 발걸음을 빨리 했다. 자갈 위에 도시락과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화려한 수영복은 필요치 않았다. 입은 옷 그대로 침병! 우리는 허리에는 튜브를 끼고 파도에 몸을 싣기도

*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하고 개구리형, 자유형(그때는 정확한 명칭을 몰랐다)도 흉내내 보고 물장구도 쳤다. 한 두시간이나 지났을까? 서서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채 밖으로 걸어나와 나의 엉덩이 크기만한 자갈 위에 앉았다. 햇살이 내리쬐서 일까? 뜨거웠다. 뜨거운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는 줄도 모른채 우리는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었다. 비록 김치, 나물 뿐인 반찬이었지만 그것은 세상 어느 음식보다 맛있었다. 맛있게 먹고 나서 드러누워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조금 후 우리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모래성 쌓기. 자갈과 바닷물사이에는 모래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두꺼비집 짓기였다. 판판한 모래위에 한 손을 얹고 그 위에 모래를 쌓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완성되면 무너지지 않게 손을 빼었다. 완성! 때론 손을 빼내다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탄성을 내질렀다. 두꺼비집을 다 지을 즈음이면 젖었던 몸이 다 마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 속에 첨병!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열심히 다시 물속에 몸을 던진다. 석양이 질 때면 그 석양의 붉은 빛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다. 옷은 바다의 소금물에 다 젖은채. 이런 저런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여름이면 때론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남해로 놀러가기도 했다. 우리 가족과 아빠 친구 가족들이 소위 '계'라는 것을 하여 배를 빌려서 남해의 또 다른 섬을 향해 떠났다. 내가 살고 있는 섬에서 남해로 가는 시간은 두 세시간 정도. 해안에서 보는 바다와 바다 한가운데서 보는 바다는 그 모습이 달랐다. 바다 한가운데의 배위에 서 있으면 마음이 탁 트였다.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라 주위를 둘러 보면 마음이 탁 트이는 것처럼 말이다. 배뒤로는 하얀 물결이 부서지며 우리 배를 따라왔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갈매기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쯤 어느덧 우리는 아담한 그러나 예쁜 작은 섬에 닿았다. 우리들은 내려서 쉼 곳을 정한 뒤 천막과 텐트를 쳤다. 그리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 입은 뒤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즐겼다.

오빠. 9살 위인 나의 오빠는 수영을 아주 잘했다. 적어도 나의 눈에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수영을 제일 잘 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오빠는 어린 나를 끌고 조금 깊은 바다로 데려갔다. 오빠팔에 이끌려 해안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니까 약간은 무섭증이 났다. 그러나 뒤에 오빠가 나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꼭 참았다. 해안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졌을 무렵 해안에 사물들이 약간 작게 보였다. 오빠와 나는 끼고 온 수경을 눈에 맞추었다. 그리고 물속을 들여다 보았다. 우와! 거기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발이 닿지 않은 바다 밑에는 커다란 바위가 깔려 있었고, 나의 발과 바다 밑 사이에는 미역, 다시마가 부유하고 있었다. 약간의 어지러움증. 바다 밑과 내가 떠있는 수면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약간의 현기증이 일었다. 난 더 이상 보는 것을 포기하고 오빠한테 다시 되돌아 가자고 했다. 오빠와 난 다시 되돌아갔다. 휴. 가져온 음식으로 허기를 달랜 후 아빠가 낚시 하는 곳으로 구경을 갔다. 지루했다. 무슨 재미로 낚시를 하는지 내가 보기엔 아무리 해도 고기가 낚여 올라 올 것 같지 않았다. 왓! 아빠는 낚시줄을 빨리 감으셨고 거기에는 작은 고기가 파닥거렸다. 파닥 파닥... 신선함 그리고 생명이 느껴졌다. 몇 마리 잡은 고기로 우리는 매운탕을 끓였다. 바로 잡은 생선으로 한 그 매운탕 맛은 일품이었다. 이래 저래 수영도 하고 낚시도 구경하고 우리는 집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아쉬움. 정말 아쉬웠다. 하루의 추억을 남기고 예쁜 섬을 떠나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와 우리 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와 집으로 가는 길은 바다를 끼고 돌았다. 그래서 나는 등학교길에 항상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날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그 얼굴을 달리하는 바다. 그리고 내마음을 나타내주는 바다.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하늘이 드높게 푸른 날은 바다는 그 햇빛에 반짝 반짝 빛이 났다. 햇빛이 반사되는 부분은 하얗게 부서진다고나 할까? 정말 아름다웠다. 그 장관을 버스 창가에서 보고 있으면 내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었다. 때론 잔뜩 찌푸린 잿빛 하늘일 때도 있다. 그때는 바다도 성난 듯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약간의 무섭증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것들이 바다의 모든 모습은 아니다. 난 매일매일 똑같은 얼굴의 바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으니까 말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출렁일 때는 정말로 바다가 잔뜩 화가난 것처럼 보였다. 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듯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중 한분이 수업중에 우리가 지루하게 느끼는 것을 눈치채시고 난데없이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들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알아?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것 모두를 다 받아준다고 바다라고 이름지워졌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우린 중 3때도 같은 반이어서 고 1때도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속마음까지 진지하게 털어놓을 정도로 친했다. 어느날 그 친구가 내게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다고. 우린 자연스럽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교실 앞 베란다로 나갔다. 교실 앞 베란다는 정말 추억의 공간이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친구와 함께한 공간이니까.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었고 이야기를 다하고 난 뒤 친구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무진기행”앞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바다가 바로 내려다보인다. 내가 어릴적 수영을 하던 그 바다. 쉬는 시간 우리가 노는 공간은 교실 앞 베란다였다. 학교 앞에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바다 위의 안개. 그것은 자연이 연출해낸 커다란 예술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이 한분 계셨다. 그 선생님은 수업시간 중 자주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다. 어느날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위의 안개를 보며 탄성을 내질렀다. 바다 안개... 바다위의 안개는 정말 장관이다. 희색빛으로 희뿌연게 흐려진 안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수평선 아니 바로 앞의 광경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바다안개가 우리 학교까지 성큼성큼 밀려 든다... 그 안개는 우리 학교 앞의 커다란 운동장을 꼭 메우고 1미터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다른 세상에 빠져든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그냥 안개 속을 걸어다닌다. 그러면 정말 탄세상에 빠져 든 느낌이다. 선생님을 그런 안개를 처음 보시는가 보다. 감성이 풍부하신 선생님께서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생각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받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창 밖으로 보이는 안개를 바라보며 나머지 시간에 소설 이야기를 하였다. 20살. 나의 인생이 바다와는 떼어낼 수가 없었던지 바다를 연구하는 대학

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회에서 중요한 시험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입학 시험을 그런대로 무사히 치르고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섬에 있는 대학. 해양대학을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국해양대학. 내가 살고 있는 섬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섬 중에 하나인 아치섬위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 학교 옆에는 석기 시대 유물인 패총도 있다. 조개 무덤. 우리의 머나먼 선조인 원시인들의 흔적.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화살촉으로 낚시를 하며 그리고 조개를 먹었을까?

우리 학교를 들어가려면 긴 방파제를 걸어야 한다.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 역할을 하는 방파제. 아스팔트로 쪽 뺀 도로가 있고 그 옆에는 정말 파도를 막기 위한 커다란 바위들이 있다. 그 양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전에는 방파제가 없어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조그만 통통배가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라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나는 주로 밤에 이 방파제 위를 걷게 된다. 수업이 없을 때 집에서 지내다가 들어오거나 또는 친구들과 낮에 만나 수다 떨다가 방파제 위를 걸을 때 쫓이면 밤이다. 방파제 위를 걸으면서 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곤 한다. 밤바다. 바다는 친구인 밤하늘을 닮아서인지 짙은 아니 어두운 푸른빛 얼굴을 드러낸다. 밤바다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수면이 잔잔할 때면 정말 결이 고운 남색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 바다 위의 풍경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아름답다. 먼저 눈길이 오른쪽으로 돌려진다. 그러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면 위에 노랗게 젖은 달빛이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남색 바다를 노랗게 적신다. 보름달일 때는 더욱더 아름답다. 그 때는 커다란 달빛과 바다가 어우러져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저 너머로 이리저리 비춰지는 등대 불빛. 등대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바다 표면은 하얀색으로 물든다. 배들이 길을 잃을까봐 등대는 밤마다 한 시도 쉬지 않고 불빛을 깜박인다. 나의 인생의 등대는 저렇게 열심히 비춰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그리고 또 점점이 노란색 부표도 보인다. 역시 길을 안내해 주는 부표. 노란 달빛과 하얀 등대 불빛, 노란색 부표 빛, 그리고 해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그만 배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아늑하고 포근해진다.

그러면 잠깐 왼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바다 너머로 아파트의 야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도시의 불빛들. 인공적이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눈이 부시다. 조금 있으면 저 불빛들도 하나 둘씩 꺼지겠지. 그리고 우리 학교 실습선인 한나라, 한바다 두척의 실습선이 눈에 들어온다. 몇 년 후면 화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멋진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되겠지. 선배님들은 몇 번 그배를 타고 대양을 가로질러 가까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를 항해하고 돌아오셨다. 그리고 몇몇의 선배님들은 배우는 학생으로서 진짜 커다란 상선을 타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교통로로서 멋진 역할을 하는 바다. 그리고 그 큰 대양에서 커다란 배에 몸을 싣는 사람들. 정말 대양 한가운데에 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왼쪽편에 보이는 바다는 그러나 사뭇 느낌이 다르다. 짙은 검은 색이라고나 할까? 그 깊고 깊은 바다에 어떤 것을 감추고 있기에 저렇게 얼굴은 평온한지 사뭇 두렵게 만든다. 이렇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벌써 방과제 끝에 다다르고 일상을 맞이하게 된다.

바다. 고등학교 때 버스안에서 창 밖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저 바다를 닮자.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를 닮자고 말이다. 지금 역시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바다를 오늘도 학교에서 내려다본다.